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배우자 지면 인터뷰

제19대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후보 배우자 지면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지면 배치 순서는 정당 공천자는 정당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는 '가나다순'으로 정했습니다. 무소속 강주덕 예비후보는 배우자가 없다고 밝혀 이번 배우자 지면 토론회에서 제외됐습니다.

질문 1

남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인으로서 몇 점, 평범한 남편으로서 몇 점을 주고 싶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주연(새누리당 정문헌 후보 배우자)
=남편으로서 존경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은 어렵지만, 90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해심이 넓고 대범한 성격이고, 아이들이나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후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편입니다.

김윤원(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 배우자)
=정치인으로서의 평점은 배우자가 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 유권자들께서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범한 남편으로서 8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자세로 지역을 누비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조정옥(무소속 손문영 후보 배우자)
=거칠고 위험한 국내외의 건설현장을 누비면서도 저와 가족에게는 언제나 한없이 섬세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지성과 감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 할까요? 정치인으로 평가하자면 아직은 초년병이기에 80점, 남편으로서 90점입니다.

김연숙(무소속 황정기 후보 배우자)
=정치인으로서 성실 하면서 끈기는 최고여서 끈질기게 설명하고 예산을 받아 낼 것이나, 심성이 고와서 50점이며, 가정에서는 음식쓰레기도 치워주고 자식들을 잘 보듬어줘 80점 남편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2

내 남편이 이번 선거에 꼭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주연(새누리당 정문헌 후보 배우자)
=내 남편만이 국회의원 적임자라 말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의정경험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후보님들보다 고향발전을 위해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윤원(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 배우자)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노력한 것을 지켜보면 설악·금강권의 산적한 지역숙원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일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 정부 출범이후 더욱 어려워진 농어민과 서민

의 민생경제를 다시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정옥(무소속 손문영 후보 배우자)
=제 남편,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해요. 해외출장갔다 오면 "우리 고향 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야 하는지..."라며 안타까워합니다. 여성인 제가 봐도 지역발전 제대로 이뤄낼 사람입니다. 약속을 묵숨처럼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김연숙(무소속 황정기 후보 배우자)
=잘은 모르지만 설악권이 제가 태어난 춘천보다 발전이 더디고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남편은 고향과 고향 아이들에 대한 애착으로 미래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3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완료되면서 바쁘게 활동하는 남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하게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배주연(새누리당 정문헌 후보 배우자)
=목소리가 항상 허스키하고 잠겨 있는 편이라 도라지를 중탕해서 아침에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보통 집에서 식사할 기회가 아침뿐이어서, 아침밥을 든든히 드실 수 있도록 신경쓰는 편입니다.

김윤원(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 배우자)
=특별하게 챙기고 신경쓰는 부분은 없습니다. 평소 지역구를 발로 누비고, 음식을 특별하게 가리지 않아서 그런지 건강하십니다. 된장찌개, 청국장 등 소박하고 시골의 맛이 담긴 음식을 좋아해 식탁걱정은 없습니다. 늘 바쁘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다는 지역민심을 전달하고,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옥(무소속 손문영 후보 배우자)
=제 남편은 몸 생각안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건강체질이라 지금도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하게 건강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 수시로 마시는 정도입니다.

김연숙(무소속 황정기 후보 배우자)
=떨어져 있어 신경을 못 쓰는 편이고 간장약과 운동을 하라고 말만 합니다.

내 남편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교육·보육 문제 해결 바라

지역구 소외 막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 달라

우리 남편이 꼭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후보자 대부분 '남편으로서' 80점 이상 남편 건강 위해 도라지 중탕 등 제공

질문 4

가정 주부이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남편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이것만을 꼭 해줬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배주연(새누리당 정문헌 후보 배우자)
=무엇보다 교육문제입니다. 아이 키우는 보육환경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기를 희망합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교육에 있습니다. 고향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윤원(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 배우자)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자녀들 보육문제와 가사노동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도 새벽부터 일하고, 도농 복합지역에서도 맞벌이 부부들은 보육문제가 큰 부담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힘들

어 하는 보육문제에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해 가사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조정옥(무소속 손문영 후보 배우자)
=똑 같은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구가 시골이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점점 소외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문제 확실히 챙겨줬으면 좋겠고, 건강 복지 문화분야도 앞서 나가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숙(무소속 황정기 후보 배우자)
=대학 입학에 대한 지방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힘써 주었으면 합니다.

질문 5

최근에 감동 깊게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책 제목과 읽게 된 동기, 감동받은 내용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배주연(새누리당 정문헌 후보 배우자)
=막내 아들을 위한 책이었지만 『가방 들어 주는 아이』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평범한 어린이 동화지만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위해 가방을 들어 주는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로부터 배워야 할 우정과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이라 생각합니다.

김윤원(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 배우자)
=김난도씨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20대와 30대 자녀들을 두고 있지만 우리시대 청년들의 아픔을 잘 표현하고 최근 청년실업과 등록금 부담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잊

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많아 감명깊게 읽었다.

조정옥(무소속 손문영 후보 배우자)
='1%의 우정'.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지만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백인남자와 건강한 신체 이외에는 가진 게 없는 흑인이 유쾌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갖게 되는 내용으로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책입니다.

김연숙(무소속 황정기 후보 배우자)
=고전의 즐거움 논어 - 공자에 있어서 필요한 책이라 생각되어 선택하였고 옛 선인의 말씀을 되뇌이고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겨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